

국제회의참가 결과보고서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
(The 33rd session, General Conference of UNESCO)

2005. 10.

보고자 : 민무숙 교육연구부 연구위원

I. 회의 개요

가. 기 간: 2005년 10월 3일(월) - 21일(금), 19일간

나. 장 소: 유네스코본부 (프랑스 파리)

다. 참석기관

- 1) 191개 정회원국
- 2) 6개 준회원국 (아루바, 영령 버진군도, 케이만 군도, 마카오, 네덜란드 안틸레스, 토켈로)
- 3) 유엔 및 유엔전문기구 대표
- 4) 비회원국 (싱가폴 등) 및 국제기구 옵서버 등

라. 잡정의제: 13개 영역 76개 항목

- 1) 총회의 구성 및 진행방법에 관한 영역
- 2) 유네스코 활동 및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영역
- 3) 2008-2009 사업 및 예산안 준비에 관한 영역
- 4) 2006-2007 사업 및 예산안에 관한 영역
- 5) 일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영역
- 6) 유네스코 조직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영역
- 7) 헌장 및 법률에 관한 영역
- 8) 협약, 권고 및 기타 국제 규범에 관한 영역
- 9) 회원국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
- 10) 행정 및 재정업무에 관한 영역
- 11)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영역
- 12) 선거에 관한 영역
- 13) 34차 총회에 관한 영역

마. 6개 분과위원회 회의구성 및 내용

분과위원회	회의기간	비고
Commission I 일반 문제 및 프로그램 지원	10월11일 오전 - 10월17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9일 오후
Commission II 교육	10월4일 오전 - 10월10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4일 오전
Commission III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10월7일 오전 - 10월12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4일 오후
Commission IV 문화	10월13일 오전 - 10월18일 오전	보고서제출 10월20일 오전

Commission V 커뮤니케이션	10월11일 오전 - 10월13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7일 오전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	10월4일 오전 - 10월10일 오후	보고서제출 10월12일 오후

바. 대표단 명단

- 1) 수석대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0.3-5)
- 2) 교체수석대표 : 주철기 주프랑스대사 (현지 참석)
- 3) 대 표 : 김종일 주프랑스공사 (현지 참석)
 - 이계영 교육인적자원부부 국제교육협력과장 (10.3-5)
 - 강경환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장 (10.8-20)
 - 최은옥 주프랑스대사관 교육관 (현지 참석)
 - 김지준 주프랑스대사관 1등서기관 (현지 참석)
 - 김명준 외교통상부 통상분쟁해결과 서기관 (10.17-22)
 - 조기중 주프랑스대사관 2등서기관 (현지 참석)
 - 김현진 교육인적자원부 국제협력과 교육행정사무관 (10.3-5)
 - 유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행정사무관 (10.3-5)
 - 김은정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외무관 (10.6-21)
 - 조수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외무관 (10.1-10)
 - 박희웅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사무관 (10.8-20)
 - 김민주 문화관광부 국제문화협력과 전문직원 (10.16-21)
 - 조효상 문화재청 문화재교류과 직원 (10.8-20)
- 4) 고 문 :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10.15-19)
 -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9.30-10.18)
 - 강대근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 (10.3-17)
 -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10.1-5)
 -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10.8-15)
 -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10.7-14)
 - 박찬모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10.10-12)
 - 김문환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10.12-18)
 - 오덕성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총장 (10.1-6)
 -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0.2-6)
 - 윤석배 방송위원회 국제교류부 차장 (10.17-22)

성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10.1-10)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10.8-15)

이양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팀장 (10.7-14)

이승미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선임담당 (10.4-14)

이지향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팀원 (10.8-17)

4) 유네스코 한위대표단

이승환 사업본부장 (10.12-21)

정우탁 교육팀장 (10.2-10)

김승윤 과학커뮤니케이션팀장 (10.6-14)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팀장 (10.2-12)

전진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팀원 (10.2-17)

5) 청소년포럼 참가자

양정연 대한 YWCA 간사

한명희 연세대학교 영문과 3년 재학

사. 대표단 주요활동

1) 본회의 및 분과회의 참석

a. 수석대표연설 (일반정책토론) / 10월4일(화요일) 오후 Session 첫 번째

b. 분과회의 참석 (5개 사업분과 및 행정분과)

- 제1분과 : 일반 문제 및 프로그램 지원
- 제2분과 : 교육
- 제3분과 :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 제4분과 : 문화
- 제5분과 : 커뮤니케이션
- 행정분과 : 재정 및 행정

2) 특별회의 참석

a. 청소년 포럼 참가 / 9월30일 - 10월2일

한국대표 2명 파견 (양정연 / 한명희)

b. 교육장관 원탁회의 "Education for all" 참가 / 10월7일 오전 - 10월8일 오후

c. 과학장관 원탁회의 "Basic Science" 참가 / 10월13 오전 - 10월14 오후

- d.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가 / 10월 5일 오후
- e. 사무총장 임명식 / 10월 21일 오전
- f. 국가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회의 참가 / 10월4일 07:30 - 09:00 (Room XII)
- g. 국가위원회 비공식 지역회의 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 10월8일 10:00 - 13:00 (Room IX)
- h.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정부간과학사업 국가별위원회 간의 협력에 관한 비공식 라운드테이블 참가 / 10월7일 13:00 - 14:30 (Room IX)
- I. 동북아 국가위 사무총장 오찬 (RBA 관련) / 10월 7일 오찬

3) 주요선거 참가

- a. 집행위원회 선거 참가: 10월14일 (필요시 10월15일 오전까지)
- b. 기타 정부간 이사회 위원국 선거 참가
 - * **한국 신규진출 희망 정부간위원회**
 - 국제교육국 위원회 (IBE)
 - * **기 진출 정부간위원회(2005년 임기만료)중 한국 재진출 희망 정부간위원회**
 - 불법소유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ICPRCP)
 - 국제수문학사업 정부간위원회 (IHP)
 -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 위원회 (IPDC)
 - * **기타 정부간위원회 중 한국 진출 희망 정부간위원회**
 - 세계유산위원회 (WHC) 15차 총회 : 10월10일-11일 (Room IV)

II. 여성개발원 총회 참여 활동 보고

가. 유네스코 총회 참여 의의 및 개요

유네스코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어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됨. 다양한 국제 규범을 포함, 총회에서 정해지는 많은 결정들은 단순히 유네스코 조직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회원국의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사업 및 정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됨. 현재 191개 회원국 중 분담금 11위인 한국은 유네스코를 위한 재정적 기여에 못지않게 총회와 같은 조직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다자간 협의체인 유네스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여성개발원은 원장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매 2년마다 총회에 참여하여 여성의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심과 협력을 꾀하고 있음. 현 서명선 원장은

한국위원회 문화분과 위원으로서 총회 기간중 문화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OECD DAC의 성평등자문관 및 프랑스 여성지위국 담당자들과의 면담, 유네스코 본부 유아 및 포괄교육과(early childhood and inclusive education)와의 인터뷰 등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개진하였음.

나. 참가 일정 및 참가자

- 일정: 10월 10(월)~10월 15일(토)
- 참가자: 서명선 원장, 민무숙 연구위원

다. 참가일정 중 문화분과위원회의 주요 의제

○ 문화 분과의 주요 의제

- 문화다양성 증진, 특히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우선 사업영역으로 제안됨.
 -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된 유산 뿐 아니라 미등록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됨.
 - 불법 반출되었거나, 도난당한 문화재 반환을 촉진하는 전략, 특히 2차대전에 사라진 문화재에 대한 논의
 - 캐나다와 스위스의 결의문초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 무형문화유산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국내외 문화유산 관련 법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강화하자는 제안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문화다양성협약) 비준

- 10월 17일 문화다양성협약이 문화분과위원회를 통과한 동 협약안은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부쳐져 한국 등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호주)으로 채택이 결정되었음..
- 그동안 동 협약이 문화다양성을 제한하거나 문화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방해할 수 있다며 협약안 채택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미국은 28개 수정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제동을 걸었으나 대세를 바꾸지 못했음. 찬성국 중 한국,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아프카니스탄 등 6개국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일부 조항의 모호성, 해석상 오류 가능성, 기존의 국제규범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지적함.
- 협약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 당사국이 이를 위해 적절한 국내적 조치 및 소멸위험에 있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문화다양성 협약은 최소 3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한국이 협약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절차가 필요함.

라. 참가일정 중 원장 활동 내용

1) 문화분과 유네스코 중기전략에 대하여 한국입장 발언

- 10월 14일 (15:00~18:00): 중기전략 세션에서 한국입장을 발언함.
 - : Debate Item 3.2/ 34c/5 documents에 대한 발언문 작성 및 발언
 - : 34c/5는 유네스코의 2008~2013년에 걸친 중기사업전략에 관한 문서임
 - 이에 대하여 기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노력에 대한 기여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에 못지않게 현재 시대의 living culture 에 대한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함. 유네스코가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노력이 중기계획에 핵심적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또한 회원국들의 새로운 문화정책 개발과정에 유네스코가 지적, 기술적 지원을 해줄 것, 특히, 여성과 청소년, 이민자등 취약집단의 문화권을 증진하여 이들의 문화향유권과 생산권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향후 중기계획에 기존에 취약하였던 예술교육에 대한 강조가 보다 더 있어야 할 것을 언급함. (첨부물 참조).

2) 유네스코 본부 유아 및 통합교과(early childhood and inclusive education)

과장(Dr. Choi, Soo-Hyang)과의 인터뷰

- 일시: 10월 12일 09:30~11:00 / 10월 15일 09:30~10:30
- 서명선 원장은 방문기간중 '유아 및 통합교육과'의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인터뷰 내용은 유네스코 위촉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유아 통합교육과'가 발행하여 전 세계 관련기구에 배포하는 policy brief에 실릴 예정임.
- 인터뷰 내용
 - 한국의 보육 및 유아 교육정책의 최근 흐름 및 정책 변화
 - 보육과 유아교육간의 통합 방향
 - 한국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의 방향
 -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배경 및 향후 담당 기능

3) OECD DAC의 GENDERNET의 성평등자문관의 면담

- 일시: 10월 13일 13:30~15:00
- 면담자: Policy Co-ordination Division, Patti O'Neill 과의 면담
- 면담내용: GENDERNET의 현황 및 기능, 본원과의 연계가능성 등
- DAC의 설립 목적 및 기능
 - : DAC는 1960년 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개발원조그룹)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여 1961년 9월 OECD조약 발효로 명칭을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로 변경, OECD산하위원회가 됨.

: 현재 EPC(경제정책위원회) 및 TC(무역위원회)와 더불어 OECD의 3대위원회의 하나임.

- DAC의 목적

: 선진국의 개발원조를 위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 및 조정

: 원조공여국들이 지속적 개발지원을 위한 원조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

- DAC의 기능

: 저개발국들의 성공적인 세계경제로의 참여 및 빈곤극복에 초점

: 개발 협력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

: 회원국들의 원조정책 정기적 검토 실시. 예로, 원조프로그램과 DAC지침 부합여부 및 원조정책관리상태, 원조규모, 여타 개발정책과의 공조 등

: 개발정책관련, 회원국 상호간 경험교환 및 전략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유도

: 개발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원조흐름 통계보고서 발간

- DAC 회원국 (22개국 및 EC)

: 미국 · 영국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벨기에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노르웨이 · 오스트리아 · 덴마크 · 스웨덴 · 스위스 · 일본 · 호주의 16개국과 EC가 회원국이었는데, 뉴질랜드가 1973년, 핀란드 1975년, 아일랜드 1985년, 1991년 스페인, 1992년 룩셈부르크, 1999년 그리스 가입

- DAC 조직

: 통계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Statistics)

: 원조효과 및 원조관행에 대한 작업반 회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

: 개발평가네트워크(Network on Development Evaluation)

: 평등 네트워크(Network on Gender Equality)

: 개발협력 및 환경에 관한 작업반 회의(Network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빈곤감소 네트워크(Network on Poverty Reduction)

: governance 네트워크(Network on Governance)

: 분쟁 평화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Network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DAC GENDERNET의 기능과 2005-2006 사업

○ 기능

- 원조사업에 있어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증진을 위한 각종 자문
- DAC 정책에 있어 성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한 전문성 제공

○ 2005-2006사업

- Beijing +10(2005, March) review process와 MDG 선언문, 이에 대한 국가기구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회의 참여
- DAC Gender Policy Marker 팀을 구성하여 DAC 사업의 성평등성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MDG 이행에 대한 review를 통해 OECD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함.
- 빈곤퇴치(poverty reduction) 전략에 성에 대한 고려가 통합될 수 있는 전략개발 및 빈곤퇴치네트워크(poverty reduction network)에 적극 개입
- 분쟁과 평화: 분쟁지역에서 평화증진을 위한 지침을 개발, 보급
- 이외에도 이주문제, HIV/AIDS 문제를 성평등의 관점에서 모범사례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회원국이기는 하나, DAC 회원국은 아니고, 현재 GNI 대비 0.06%, 약 403백만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두배로 증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향후, 이러한 원조사업중 여성, 혹은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협력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4) 프랑스 여성권리국(Office of Women's Right & Equality) 담당자와의 면담

○ 일시: 10월 14일 10:00~11:30

○ 면담자: Joël Voisin, Patricia Germain-Sergent

○ 면담내용:

- 프랑스 여성권리국의 부서 구성

: 중앙부서 현원은 50명이며, 이중 남자직원은 9명으로 구성됨

: 프랑스 전역 110개 기초지역의 지역네트워크(local network) 2명씩 담당자가 있어서 총 220명이 이 일을 담당함.

: 조직은 4개 부서로 구성됨. 주로 인권과 노동시장에서의 평등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안내서나 출판물을 홍보하고 있음.

- 인력 및 총무부서(Human resources and general administration office)

- 출판홍보부서(communication office)

- 권리국(office of individual and social right): 건강, 피임,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

이민자 문제

- 직업평등국(office of equality in the workplace):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평등문제
- 프랑스 정부조직은 수상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가짐. 현재 조직은 2004년에 새로이 바뀐 것임. 이 부서는 사회통합 및 평등부 (Ministry of Social Cohesion & Equality)내 하위 조직임.
- 프랑스에도 수상 직속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같은 ‘여성권리위원회’(Committe interministerial charge des Droits des Femmes)가 1982년 3월 2일에 설치되어 각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위원회는 수상만이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 3월에 개최된 이후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러한 문제로 여성권리국에서는 각종 홍보물과 교육자료들을 개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특히, 직업상의 평등을 위하여 직종 분포 및 임금 차이에 대한 여러 통계자료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초중등 및 대학의 교사교육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프랑스 주요 여성정책 현안, 특히 저출산문제 해결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였음. 프랑스는 2년 전부터 기업이 보육시설을 갖추거나 근처 시설에 맡기도록 지원할 경우, 기업의 세금면제혜택을 주기 시작함. 최근에는 육아지원수당을 강화하고, 3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3년간 지원액을 낮추어서 받을 것인지, 1년을 높게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함. 일을 그만둔 엄마의 경우에도 2년간 일을 한 증명 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함. 또한 작년부터 출생아동의 성을 아빠 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을 바꾸어 아빠, 엄마 성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첨부물>

1. 원장 발언문
2. 유네스코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안
3. OECD DAC 발행 젠더평등 지침서 (Gender equality tipsheet) 및 문서들
4. 프랑스 여성지위국 발행 각종 홍보물

<부록> : 서명선 원장 발언문

Debate, Item 3.2 34 C/4 Documents (Friday, 14 October 3-6 pm)

Mr. Chair,

Thank you for giving me the floor. On behalf of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being elected to chair this very important commission.

My delegation shares the understanding that we are now witnessing rapid chan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a trend in which UNESCO has also been taking part. Accordingly,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newly emerging demands of our tim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eparation of the 34 C/4 documents. With this in mind, my delegation would like to address several issues, mainly on the principles and priorities of programs in the years 2008-2013.

First,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problems and challenges of today's cultures and peoples' diverse ways of living, while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preservation of past legacies of humanity. It is quite evident that the programs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has allowed UNESCO to gain more recognition and credibility. My delegation sincerely hopes that UNESCO will render due consideration to the development of more innovative programs focusing on the present and contemporary living cultures.

Second, my delegation would also like to emphasize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the core spirit of the 34 C/4 documents. Mr. Chair, cultural diversity is a priori an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mong peoples and societies. A more systematic and concentrated effort is therefore needed to preserve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Third, my delegation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policies of the member states. As you are aware, most member states are about to reformulate their culture policies to meet the challenges of contemporary society. I do believe that UNESCO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providing intellectu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the member states. Furthermore, new trends and concepts of culture polic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eoples and societies should be more reflected in future programs. In particular, the cultural rights of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women, youth, and immigrant populations should be fostered,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opportunity to enjoy cultural programs and to actively take part in the process of creating culture.

Finally, Considering the intrinsic value of art as a source of creativity, further efforts to implement art programs need to be strengthened. We look forward to the adoption of diverse programs to improve and enhance the artistic capabilities and expression of people.

Mr. Chair,

My delegation expects that these points will be fully reflected in the formulation of cultural programs for the 34 C/4. In addition, I wish to remind you that my delegation shares its concern with the consistent efforts of UNESCO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rogram implementation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policy.

Let me close by saying that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full support of the 33 C/COM. 1,2,3,4,5/DR 2.

Thank you for your attention.